大學校長論

丁 淳 陸
(嶺南大 敎育學科)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전국의 총·학장들로 구성되어 문교부의 방패막이나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으나, 「大學敎育」誌를 몇 권 훑어보니 이제는 대학교수협의회로 탈바꿈하여 교수 언론의 광장이 되어도 좋을 때가 된 성 싶은 생각이 들었다. 총·학장들이야 달리 할 일도 많고 또 한가로이 글 쓸 겨를도 없을 것이니 '大學敎育'의 산파역으로 물러서서 우리들 교육 없는 행정시대에 교육복권의 자리로 진좌하라는 뜻이다. 사립대학의 총·학장들이 국립대학과 함께 덩달아 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면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말로 '모양'이 좋지 않다. 사립대학은 특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연맹을 사단법인으로 조직하여 달마다 「大學時報」를 발간하고 사립대학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전에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제자가 찾아왔기에 넌지시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다가 나중에 총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것이다. 이즈음의 총장 수난을 빗대는 말이지만 행정 총장이 교육 총장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존경하는 총장님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5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은 대개 총장에 대한 경외의 감과 어느 정도 신비로운 권위마저 부여한 듯하다. 이른바 거물 총장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고, 홈볼트的인 이상에 허친스的인 권위를 총장이라는 명사 속에 성격 이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고등교육사의 파행적인 일탈은 바로 학장이 총장으로 되는 改名史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단과대학들이 앞을 다투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려고 부실한 양적 팽창을 갈망하다가 보니 마침내 총장(학장은 물론) 양산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제1세대 학교 경영자는 너도 나도 총장 '감투'에 흥분하고 자위하고 드디어 기고만장하였다. 도대체 '大學'과 '大學校'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알량한 〈校〉자 한 자를 달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사가 지불한 대가는 敎育無貨로 반납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잃은 것은 교육이고 얻은 것은 호칭이었다. '呼稱 인플레'는 GNP의 성장율보다 빠르고 높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제 웬만한 단체치고 '사무총장'이 없는 곳이 없고 구멍가게를 벌이고 있어도 사장으로 행세하기가 창피하여 이도 저도 회장이다. 이렇게 지천으로 흔해진 총장 시대에 그래도 대학의 총장은 한 수 높은 격으로 置簿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총장실은 학생 데모의 과녁이 되고 심지어 烏有의 火葬室마저 되어버리게 된 마당에 총장이 학생 재판에 의하여 자리를 물러서는 일은 대학 표상에 대한 권위 실추가 아니라 한두 곳, 또는 한두 총장의 불행한 사례로 평가 절하될 성질인가. 교수들의 시국성명은 용기 있는 지성의 표현인지 모르나 교수의 '교육선언'이 앞서야 될 것으로 믿는다. 교수의 교수가 되어야 할 총장이 교육 외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지

성의 전당은 그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적인 무정부 상태는 계속될 뿐이다.

이제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교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호칭도 총장이 아니라 대학 교장으로 부르게 되면 더욱 좋다.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 총장은 편의적인 명칭이고 법률적으로는 학장이며, 대북이나 북경의 대학 총장은 어디까지나 교장이다. 그리고 대학의 총장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보다 교육 본질과 관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학은 〈學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일컬어 第四府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 스스로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각이 있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보다 강력한 권위에 의하여 예속 당하고 지배되기 십상이다. 대학 권위의 표상인 총장이 학교의 首長, 곧 교육을 교육하는 책임 관리자라는 각오는 대학 교장으로 족하다. 대외적인 총장이 대내적인 교장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은 겸손하나 剛毅한 결단이고 還鄕이다.

둘째로 오늘의 우리 대학은 〈俗化〉되었기 때문이다. 가운(gown)이 타운(town)이 되고 象牙塔(ivory tower)이 煉瓦塔(red brick)이 된 사실은 어쩌면 대학 발달사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진리의 城은 엣 수도승들의 고고한 사원에서가 아니라 학문 시장(academic marketing)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총장이 추기경과 같은 권위의 홀(笏)을 잡고 있는 것도 시대착오이지만 교수 역시 진리 파지의 고행자가 되라는 주문 또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최선단의 대학생 범람국이 되게 하였다. 백만 명의 대학 인구가 백만의 병력 수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나 백여 명의 대학 총(학)장과 4만여 명의 교수와 백만 명의 대학생을 거느린 우리의 대학 사회가 그대로 나라 힘을 재는 척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증거를 다 들을(聽問) 겨를은 없지만, 한국 대학의 병리 현상은 대학 관리자, 교수, 학생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俗化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말을 좁혀 대학의 총장이 俗化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행정의 총장이 되는 데는 유능하였으나 학교의 교장이 되려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다.

세째로 앞으로의 우리 대학은 '공황 시대'에 접어들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Higher Education* 이라는(겉모양은 볼 품이 별로 없는) 저널을 받아보고 있지만, 때로는 알찬 내용으로 대학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이 잡지에 실린 광고란에서 가장 많은 것이 대학 매매와 총장 구인란이다. 무리하게 명예학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인사들에게 귀띔을 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가서 허름한 대학 하나를 사거나 총장 한 자리쯤 사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정보이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총장들이 학생(고객) 유치를 위한 시장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우리라는 사실은 이미 옛 소식이다. 이러한 대학 공황의 물결이 일본에 상륙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미국→일본→한국의 교육 파장의 진폭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서 대학의 위기 관리는 정치 문제에서 경영 문제로 置換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앞으로 많은 '대학 교장'은 정치 수완 대신 경영 수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대학 행정의 체중 감량을 서서히 도모하여야 할 때이다.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은 학부로 축소하고(학장을 지내보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있어서도 행정 체계가 아니라 교육 체계로 전환시켜야 할 때이다. 대학 교장의 교장론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